

유통·화장품 한 주 딱잡기



Analyst 안지영 6915-5675 [jyahn@ibks.com]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편의점이 담배에 아우성인 이유...어쨌든 '카드수수료 인하' (뉴시스 2018.09.02)

편의점 점주들이 담배 판매 관련 카드수수료 인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외부 악재로 경영난이 심화되자 카드수수료 인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주들은 담배 매출 중 세금을 전체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안, 우대수수료의 범위를 넓혀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이 담배 판매와 관련해 여러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핵심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맞춰진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카드수수료를 낮추자는 얘기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문제는 담배가격 대부분이 세금으로 이뤄져 있어 편의점주에게 남는 마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로, 4500원짜리 담배 한갑을 팔면 편의점주는 얼마를 남길까. 손님이 현금계산을 하면 담배 판매 총이익은 430원이다. 이를 점포 280원, 본부가 150원을 가져간다. 카드로 계산하면 총이익은 340원으로 줄어들고 이중 점포는 220원, 본부는 120원을 가져간다. 물론 점포와 본사의 이익배분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점주들은 약 200원의 이익에서 다시 카드 수수료를 내야한다. 문제는 카드수수료가 담배의 전체가격인 45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편의점주들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사업권 반납 '후폭풍'...롯데면세점, 해외서 돌파구 마련 (아시아경제 2018.08.31)

인천공항 사업권 반납의 '후폭풍'이 지속된 탓에 롯데면세점의 국내 점유율 하락도 불가피해졌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국내 '외형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에 따라, 베트남과 호주 등 해외를 중심으로 매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31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올해 들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잇따라 탈락했다. 지난 2월 인천공항 사업권을 중도 포기한 데 따른 일종의 '괘씸죄'가 롯데면세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렇다 보니 롯데면세점 또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공항의 신규 입찰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자국 기업을 밀어주는 분위기가 강해 사실상 진입이 어렵다"며 "신규 출점이나 인수·합병(M&A) 등이 아니고서는 외형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만 타오위안공항 입찰에서 탈락한 것도 비슷한 이유라는 평가다. 그러나 롯데면세점은 최근 호주 JR면세점과 첫 M&A에 성공하면서 매출 하락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일부 완화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과거에도 미국과 이탈리아, 호주 등의 면세점 인수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밑을 완주하는 데는 모두 실패한 전례가 있다. 호주 JR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던 사업장 5곳을 인수하면서 기존 7개였던 롯데면세점의 해외점은 12곳까지 늘었다. 호주 JR의 사업장 인수는 오는 12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업장의 인수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롯데면세점의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매출 확대 전략도 지속될 전망이다. 현지 합작기업인 '푸칸면세점'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성이 높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신규 출점을 지속한다는 목표다. 베트남의 경우 입찰 방식이 아닌 만큼, 현지 파트너를 활용해 신규 출점에 나서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평가가 많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사업권 반납으로 매출액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수익성 자체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 타이공(보파리상)의 증가와 온라인 판매 채널 등도 매출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상반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의 해외 매출은 1천억원 수준이었던 반면, 업계 라이벌인 호텔신라는 4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렸다.

7월 불벌더위에 온라인몰 '웃고'·대형마트 '울고' (아이뉴스24 2018.08.30)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유통업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체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2.3%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온라인은 17.8%나 늘면서 올해 1월(21.6%) 이후 가장 큰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전체 유통업체 매출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에서 38.5% 증가했다. 이마트·롯데닷컴·위메프·티몬 등 온라인판매업자는 여행상품 등 서비스/기타부문(37.6%)과 건강보조식품 등 식품군(29.9%) 매출이 크게 성장하며 전체 매출이 21.5% 증가했다. 이베이코리아·11번가·인터파크·쿠팡 등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계절가전 수요 증가에 따른 가전/전자부문(20.3%) 호조에 힘입어 총 매출액이 16.3% 늘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에서는 대형마트(-2.5%)를 제외한 모든 채널의 매출이 늘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에어컨 등 가전부문(1.6%) 매출은 성장했지만 식품군(-0.4%)을 비롯한 나머지 상품군 매출이 부진하며 전체 실적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의 점포당 매출액도 2.1% 감소하며 오프라인 중 유일하게 내림세를 나타냈다.

남양유업, 中 알리바바그룹 대형마트에 유제품 수출 (연합뉴스 2018.08.31)

남양유업은 국내 유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 상거래업체 1위 알리바바 그룹이 만든 신선식품 대형마트 '허마셴성'에 한국산 유제품을 수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허마셴성은 온라인·오프라인·물류를 통합해 신선식품을 강점으로 내세운 알리바바 그룹의 신 유통채널이다. 2016년 상하이에 첫 매장을 연 이래 9개 도시에서 60개 매장을 두고 있다. 허마셴성은 소비자가 상품을 눈으로 본 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가까운 매장 직원이 곧바로 배송을 시작해 3km 이내는 30분 배송을 목표로 가져다준다. 남양유업은 "이처럼 매년 새롭게 성장하는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을 면밀히 지켜보고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달 3일 흰 우유 제품 '남향진한우유'를 처음 수출한 데 이어, 이날 발효유 '이오'까지 수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홈쇼핑 사용자 85.7% "새벽배송 도입 긍정적" (프라임경제 2018.08.30)

버즈니(공동대표 남상협, 김성국)가 모바일 홈쇼핑 포털 앱 홈쇼핑모아 이용자 73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7%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에 '새벽배송' 서비스가 생기면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새벽배송은 전날 특정 시간까지 주문을 완료할 경우 다음날 아침에 배송해 주는 시스템이다. 최근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새벽배송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64.2%는 '있으면 좋은 서비스'라고 답했다. '꼭 필요했던 서비스'라는 의견도 10.8%였다. 새벽배송을 이용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날 주문한 상품을 아침 혹은 당일에 사용하기 위해'라는 의견이 45.6%로 가장 많았고 △급한 건 아니지만 가능한 택배를 가능한 빨리 받기 위해(38.1%) △낮에 택배 받을 사람이 없어서(14%) △기타(2.3%)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추후 새벽배송이 신선식품을 포함해 모든 상품군으로 확대된다면 주로 주문할 상품에 대해서는 △식품(36%) △패션/잡화(18.9%) △생활/주방(17.2%) △화장품(11.2%) △모든 상품(7.8%) △기타(5.5%) △가전/디지털(3.4%) 순으로 응답했다.

중국 햄버거 가게선 카메라 보고 웃으면 결제 완료 (중앙일보 2018.08.28)

점심을 먹기 위해 KFC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려는데 점원이 옆에 있는 무인 단말기에서 메뉴를 주문하는 게 빠르다고 알려준다. "그냥 얼굴만 대고 웃으면 된다"는 말과 함께, 이는 바로 지난해 9월부터 알리바바가 서비스하고 있는 'Smile to pay' 시스템이다. 먼저 얼굴을 등록한 뒤 매장에서 주문하고, 카메라를 보고 웃기만 하면 알리페이로 연동돼 자동 결제되는 것이다. 인식에서 결제까지 3초 정도 걸린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속일 수 없도록 얼굴을 입체적으로 스캔할 수 있는 'Depth-Sensing Cameras' 기술 구현과 함께 유사성 감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짙은 색조화장이나 가발을 쓰고 있어도 등록된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다이공 시장 포화?...면세점 매출 낙달세 2200억 빠진 이유 (아시아경제 2018.08.27)

국내 면세점 매출이 낙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여파로 방한이 중단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신 '다이공'이라고 불리는 보따리상이 싸늘이 쇼핑에 나서면서 오히려 면세 시장은 폭풍 성장을 이룬. 하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다소 수그러들면서 다이공이 이끌던 시장이 포화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시됨.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13억4300만 달러로 전년(9억8300만 달러)보다 36.7% 증가. 다만 국내 면세점 매출은 지난 3월 15억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 더욱이 그동안 면세 업계에선 여름휴가 기간인 7~8월이 최대 성수기였기 때문에 이같은 실적은 이례적. 면세점은 해외 여행에 나서는 국내·외국인들의 필수 코스인 까닭. 다만 지난해 3월 중국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중단한 이후 면세 시장에서 여름 성수기가 사실상 사라짐. 중국의 모바일 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보따리상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쓰는 씬스이가 급격히 늘었고, 매달 면세점 매출이 증가함.

업종코멘트(9/3-9/7)

유통, 화장품: 8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 2.3% 증가, 온라인은 17.8% 증가함. 특히 대형마트의 구매건수가 전년대비 -3.5%, SSM -1.6%, 백화점 -0.1%에 그침. 반면에 편의점은 4.2%로 증가 반전함. 반면에 모든 업태에서 구매단가는 증가함. 화장품은 국내 면세점 채널 영향으로 7월대비 8월 매출 회복을 보임. 또한 지난해 7월과 8월은 사드 이슈가 직접적이었던 시점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에서도 기저효과가 뚜렷할 전망.

국내외 업종 지수 및 Peer 종목군 주가 상승/하락률

지수	증가(p)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KOSPI	2,322.88	1.29%	롯데쇼핑	0.00	-1.37	-12.62	GS리테일	0.68	5.38	11.88
KOSDAQ	816.97	2.35%	현대백화점	0.40	3.75	1.22	코웨이	-0.11	-1.51	-2.56
유통업	429.76	0.18%	신세계	3.51	9.44	-2.26	아모레퍼시픽	-2.41	0.96	-1.68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1.90	3.62	-1.83	LG생활건강	0.72	7.20	4.55
KRW/USD	1,108.80	-1.07	롯데하이마트	0.70	-2.05	-7.13	코스맥스	2.36	8.96	11.76
KRW/JPY	998.65	-0.78	CJ오쇼핑	-2.78	3.32	8.67	한국콜마	1.50	2.91	8.94
KRW/CNY	162.29	-0.61	현대홈쇼핑	0.89	0.44	3.18	토니모리	-0.66	9.09	4.53
			엔에스쇼핑	0.81	0.40	-1.20	잇츠스킨	-0.23	0.11	-11.22
			GS홈쇼핑	2.62	2.88	4.38	클리오	7.42	3.72	-14.42
			BGF리테일	7.86	6.19	1.48	코스메카코리아	-5.13	-1.77	19.57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시세이도	3.5	9.1	-2.2	노드스트롬	0.8	1.7	2.6	텐센트	1.0	-2.0	8.0
로레알	0.0	1.6	-1.6	막스&스펜서	7.6	10.6	10.7	알리바바	-3.2	-3.9	-4.3
에이본프로덕츠	-1.5	-2.0	16.3	다카시마야	1.3	6.2	23.8	JD닷컴	0.2	5.4	8.3
상해자화	-0.4	-9.1	-19.1	이온 물	-0.8	0.9	3.2	VIP샵	-1.2	2.8	1.4
크리스찬디올	0.7	0.6	0.9	세븐&홀딩스	-2.9	-1.0	-1.6	스타트투데이	-4.0	0.9	-1.4
P&G	-0.5	-0.9	1.2	아마존	0.0	1.3	-3.8	이베이	0.4	1.3	-4.2
고세	6.0	12.6	-3.3	월마트	-0.6	-1.8	0.5	메르카도리브레	-0.3	-2.9	-13.8
에스티로더	3.3	3.1	2.5	테스코	5.6	6.9	9.7	라쿠텐	1.5	-2.4	-25.8
LVMH	0.8	1.7	2.6	타겟	1.0	-2.0	8.0				
ULTA	7.6	10.6	10.7	까르푸	-3.2	-3.9	-4.3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화장품 글로벌 피어	시세이도	로레알	에이본 프로덕츠	상하이 자화	크리스찬 디올	P&G	고세	에스티로더	LVMH	ULTA
현재가(현지통화)	7,824.00	206.70	2.00	29.43	371.20	82.95	20,500.00	140.12	301.85	260.00
시가총액(백만USD)	28,174	134,234	885	2,886	77,692	206,476	11,182	51,451	176,779	15,540
매출액 (백만USD)	2016 7,840 2017 8,964 2018 9,860 2019 10,704	27,578 29,400 30,911 32,581	5,718 5,716 5,632 5,621	890 953 1,099 1,312	43,721 49,330 54,100 57,769	65,058 #REF! 67,105 69,088	2,468 2,738 3,026 3,289	11,824 13,683 14,358 15,263	41,617 48,167 54,502 58,480	4,855 5,885 6,706 7,552
영업이익 (백만USD)	2016 339 2017 717 2018 1,104 2019 1,320	4,342 5,079 5,611 6,010	322 273 352 351	37 54 97 128	7,874 9,263 N/A N/A	13,955 13,711 14,633 15,425	362 437 527 588	1,692 2,052 2,415 2,652	7,638 9,169 11,518 12,522	655 785 860 986
순이익 (백만USD)	2016 296 2017 203 2018 688 2019 850	3,438 4,046 4,628 4,947	-108 22 45 89	30 58 79 104	1,952 2,531 2,907 3,209	15,326 9,750 11,439 12,002	200 276 336 378	1,249 1,108 1,780 1,964	4,406 5,794 7,428 8,052	410 555 659 751
PER (배)	2016 36.8 2017 95.6 2018 40.6 2019 33.1	31.5 27.1 29.3 27.4	68.5 37.1 24.7 11.2	90.4 63.6 36.0 27.9	20.3 24.4 26.9 24.3	22.4 18.7 18.6 17.6	26.5 41.5 31.2 27.8	25.9 31.6 29.2 26.3	22.9 24.0 24.0 22.1	41.0 26.1 23.8 20.3
ROE (%)	2016 5.6 2017 5.6 2018 18.7 2019 18.7	12.9 14.5 15.1 15.1	N/A N/A N/A N/A	3.7 7.3 9.3 11.3	16.0 18.2 18.5 18.4	27.8 18.3 20.1 22.1	13.9 17.6 19.6 18.8	31.4 24.4 36.8 41.4	15.7 18.6 20.3 19.7	27.4 33.4 35.0 36.4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유통 글로벌 피어	노드 스트롬	맥스&스펜서	다카시 마야	이온 몰	세븐&홀딩스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타겟
현재가(현지통화)	62.85	301.60	1,794.00	1,859.00	4,525.00	2,012.71	95.86	246.50	87.50
시가총액(백만USD)	10,527	6,350	2,871	3,807	36,110	981,682	282,868	31,274	46,056
매출액 (백만USD)	2016: 14,757 2017: 15,478 2018: 15,920 2019: 16,258	2016: 13,882 2017: 14,194 2018: 13,682 2019: 13,874	2016: 7,962 2017: 7,960 2018: 8,379 2019: 8,579	2016: 2,496 2017: 2,587 2018: 2,814 2019: 2,972	2016: 42,978 2017: 43,162 2018: 59,935 2019: 61,957	2016: 135,987 2017: 177,866 2018: 234,974 2019: 286,285	2016: 485,873 2017: 500,343 2018: 514,878 2019: 529,631	2016: 74,106 2017: 75,382 2018: 82,759 2019: 84,681	2016: 69,495 2017: 71,879 2018: 74,999 2019: 76,439
영업이익 (백만USD)	2016: 805 2017: 926 2018: 957 2019: 979	2016: 881 2017: 331 2018: 889 2019: 815	2016: 314 2017: 317 2018: 281 2019: 318	2016: 416 2017: 442 2018: 479 2019: 523	2016: 3,372 2017: 3,516 2018: 3,756 2019: 4,033	2016: 4,186 2017: 4,106 2018: 11,030 2019: 17,217	2016: 22,764 2017: 20,437 2018: 22,006 2019: 21,878	2016: 1,348 2017: 2,409 2018: 2,730 2019: 3,097	2016: 4,969 2017: 4,312 2018: 4,168 2019: 4,175
순이익 (백만USD)	2016: 354 2017: 437 2018: 613 2019: 628	2016: 153 2017: 34 2018: 551 2019: 564	2016: 193 2017: 212 2018: 181 2019: 211	2016: 264 2017: 274 2018: 293 2019: 323	2016: 895 2017: 1,626 2018: 1,928 2019: 2,249	2016: 2,371 2017: 3,033 2018: 13,246 2019: 18,632	2016: 13,643 2017: 9,862 2018: 14,358 2019: 13,805	2016: -53 2017: 1,581 2018: 1,710 2019: 2,110	2016: 2,737 2017: 2,934 2018: 2,863 2019: 2,829
PER (배)	2016: 13.6 2017: 16.9 2018: 17.5 2019: 16.7	2016: 46.8 2017: 168.9 2018: 11.4 2019: 11.2	2016: 16.9 2017: 16.1 2018: 15.9 2019: 13.6	2016: 13.8 2017: 16.7 2018: 13.0 2019: 11.9	2016: 40.2 2017: 21.8 2018: 18.7 2019: 16.1	2016: 152.7 2017: 256.6 2018: 75.4 2019: 54.8	2016: 15.4 2017: 24.1 2018: 19.9 2019: 19.8	2016: 56.8 2017: 234.6 2018: 16.9 2019: 17.1	2016: 15.4 2017: 12.7 2018: 15.5 2019: 16.1
ROE (%)	2016: 40.7 2017: 47.3 2018: 54.3 2019: 47.8	2016: 3.5 2017: 0.8 2018: 13.4 2019: 13.9	2016: 5.1 2017: 5.6 2018: 4.5 2019: 5.0	2016: 8.3 2017: 8.4 2018: 8.5 2019: 8.7	2016: 4.1 2017: 7.6 2018: 8.6 2019: 9.4	2016: 14.5 2017: 12.9 2018: 21.7 2019: 23.5	2016: 17.2 2017: 12.7 2018: 16.3 2019: 20.9	2016: 1.8 2017: -0.5 2018: 10.9 2019: 11.5	2016: 25.0 2017: 22.9 2018: 24.4 2019: 25.0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유통 글로벌 피어	까르푸	텐센트	알리바바	JD닷컴	VIP샵	스타트 투데이	이베이	메르카도 리브레	라쿠텐
현재가(현지통화)	15.37	340.00	175.01	31.30	6.98	3,830.00	34.61	342.41	849.90
시가총액(백만USD)	14,066	412,480	453,658	44,894	4,620	10,745	34,248	15,120	10,976
매출액 (백만USD)	2016: 87,189 2017: 92,207 2018: 90,949 2019: 92,739	2016: 22,880 2017: 35,223 2018: 47,465 2019: 63,111	2016: 23,531 2017: 37,825 2018: 58,394 2019: 80,825	2016: 38,895 2017: 53,678 2018: 68,835 2019: 86,189	2016: 8,522 2017: 10,802 2018: 12,725 2019: 14,942	2016: 706 2017: 888 2018: 1,236 2019: 1,641	2016: 8,979 2017: 9,567 2018: 10,808 2019: 11,636	2016: 844 2017: 1,398 2018: 1,462 2019: 2,034	2016: 7,209 2017: 8,424 2018: 9,734 2019: 10,975
영업이익 (백만USD)	2016: 2,190 2017: 786 2018: 2,100 2019: 2,537	2016: 7,971 2017: 12,540 2018: 15,332 2019: 19,047	2016: 4,578 2017: 7,145 2018: 11,116 2019: 11,376	2016: -188 2017: -124 2018: -171 2019: 370	2016: 408 2017: 399 2018: 404 2019: 495	2016: 243 2017: 295 2018: 346 2019: 453	2016: 2,325 2017: 2,265 2018: 2,839 2019: 3,029	2016: 181 2017: 56 2018: -34 2019: 79	2016: 730 2017: 1,342 2018: 1,157 2019: 1,060
순이익 (백만USD)	2016: 826 2017: -600 2018: 887 2019: 1,055	2016: 6,188 2017: 10,594 2018: 11,908 2019: 15,415	2016: 6,493 2017: 9,687 2018: 15,177 2019: 20,614	2016: -573 2017: -23 2018: 597 2019: 1,318	2016: 307 2017: 289 2018: 390 2019: 458	2016: 158 2017: 182 2018: 244 2019: 318	2016: 7,266 2017: -1,016 2018: 2,291 2019: 2,390	2016: 136 2017: 14 2018: -8 2019: 59	2016: 350 2017: 986 2018: 709 2019: 643
PER (배)	2016: 21.6 2017: N/A 2018: 15.6 2019: 13.2	2016: 38.7 2017: 44.5 2018: 34.4 2019: 26.7	2016: 55.3 2017: 47.1 2018: 35.9 2019: 31.0	2016: N/A 2017: N/A 2018: 72.9 2019: 41.6	2016: 22.2 2017: 23.8 2018: 12.4 2019: 10.6	2016: 45.1 2017: 43.9 2018: 44.0 2019: 33.7	2016: 18.1 2017: 30.4 2018: 15.1 2019: 13.5	2016: 47.5 2017: 197.1 2018: N/A 2019: 283.2	2016: 43.0 2017: 12.9 2018: 14.6 2019: 16.7
ROE (%)	2016: 7.4 2017: -5.2 2018: 6.8 2019: 8.1	2016: 27.9 2017: 33.2 2018: 27.3 2019: 27.2	2016: 17.6 2017: 19.9 2018: 16.6 2019: 20.2	2016: -11.8 2017: -0.4 2018: 0.7 2019: 5.6	2016: 43.9 2017: 19.5 2018: 13.8 2019: 15.3	2016: 72.7 2017: 57.4 2018: 67.0 2019: 68.1	2016: 84.9 2017: -10.9 2018: 29.8 2019: 32.2	2016: 35.5 2017: 3.7 2018: -23.3 2019: 3.3	2016: 5.7 2017: 16.2 2018: 10.7 2019: 8.8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